

아동화에 표현된 “웃”에 대한 의미 분석

—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의복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다. 말은 들어서 그 사람의 심리표현과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복식은 봄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표현과 사회적 지위 및 개성을 알 수 있고, 신분, 인성, 가치, 취미, 직업, 분위기 등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의미를 전달하듯이 의복도 의복형태를 통해 의미 전달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전달과정에서 인간은 심리와 내면적인 표현, 곧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식 표현의 의미를 언어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복식표현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여 착용자의 심리와 감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언어학의 이론은 지오페리 리치(G.N.Leech), 나이다(E.A.Nida), 크루스(D.A.Cruse) 등의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참조로 하여 의미의 정의와 종류 등을 살펴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중 언어학에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층위 분류개념을 복식에 적용하여 복식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서울지역의 강남, 강서, 강북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른들의 꿈이 무의식의 표현인 것처럼 어린이들의 그림이 무의식 세계의 표현이라는 안나 프로이드의 이론에 착안하여 그들에게 “웃”이라 했을 때 연상되는 “웃”그림을 그리고 한 후 그 그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리치, 나이다, 크루스 등 여러학자들의 의미층위 분류방법 중에서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 주제적 의미, 언어적 의미, 내포적 의미, 반영적 의미, 정서적 의미, 사회적 의미 등 7가지로 나눈 리치의 의미유형을 일부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을 사용하여 그들의 그림을 분석했을 때 그들의 웃에 대한 심리와 내면세계를 알 수 있었다.

가장 민감하고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인 아동의 내면세계에 있어서 “웃”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규명해보고 이러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아동복의 디자인이나 상품기획(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